

영국 새 총리 수색 前 재무장관 유력 경제혼란 수습·보수당 재건 등 혐의로

보리스 존슨 전 총리 불출마 선언 2016년 브렉시트 후 5번째 총리 안보·에너지 위기도 증대한 과제

영국 총리가 7주 만에 바뀐다. 후보자로는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불출마 선언으로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단독 후보로 등록하며 총리에 오를 확률이 높아졌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수낙 전 장관은 리스 트러스 총리 시절 초래된 극심한 혼란상을 수습하면서 가뜰이나 경기침체로 접어드는 영국 경제를 살려낼 중책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기술적으로 경기침체나 아니나 기로에 서 있는 상태로,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최근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 정책 예측 가능성 약화와 영국 정부에 대한 시장 신뢰 훼손, 차입 비용 증가에 따른 부채상환 능력 약화 등을 사유로 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영국 경제성장률이 0.3%로 4월 전망치(1.2%) 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미니예산 발표 전에 산출된 수치였다.

철도·우편·교육·의료 등 공공 부문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도 잇따르면서 공공 서비스 운

영이 원활치 않은 상태다.

정부 차입은 9월에 200억파운드로 로이터 예상(171억파운드) 보다 훨씬 많았고, 올해 4월 이후 차입금은 725억파운드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거의 두 배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정부 이자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다.

영국은 이미 올해 초부터 이런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트러스 총리의 정책 헛발질로 급가속됐다. 그는 취임 직후 재정 전망 없이 50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안을 발표, 금융시장을 대혼란으로 몰아넣은 뒤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당장 10월 31일에 예산안 발표 여부부터 결정돼야 한다. 영국 정부는 이 때 재정 전망까지 내놓을 예정이었다.

예산안엔 영국인들이 증세와 지출 삭감의 고통을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할지, 부채는 얼마나 늘어야 할지가 나오게 된다.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은 트러스 총리의 감세안과 경제정책을 뒤집으면서 고통스런 결정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브렉시트 결정 후 영국은 총리가 길어야 3년 버틸 정도로 정치환경이 불안정하다. 2016년 브렉시트 투표 후만 5번째 총리를 맞는다. 특히 트러스 총리는 '영국 자산 투매'를 초래해 리더의 중요성을 절감케 했다.

이 때문에 보수당 안팎에서는 단일 후보를 내세

워서 신속하게 정부를 구성하고 안정을 이루자는 요구가 많았다. 무엇보다 트러스 총리의 실책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 노동당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 위기의 보수당을 재건할 임무가 새 총리 어깨 위에 놓였다. 야당의 조기 총선 실시 압박도 무시하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브렉시트 이후 분열은 스코틀랜드 독립 움직임도 자극했다. 니콜라 스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내년 10월 독립 재투표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영국 정치에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도 브렉시트의 일환인 북아일랜드 협약과 관련해 유럽연합(EU)과 갈등을 풀고 북아일랜드 내부 문제도 풀어야 한다.

북아일랜드 협약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이지만 EU 단일시장에 남아 EU 규제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에는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적용된다. 그러나 막상 실행 후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영국은 협약을 재협상하자고 주장한 반면 EU는 국제적 약속을 파기할 순 없다고 받아쳤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기에서 촉발된 안보·에너지 위기도 증대한 과제다. 영국에선 자칫 유럽에서 오는 가스 공급이 축소되면 순환 정전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허리케인 '로즐린' 멕시코 강타 멕시코 나야리투 사울리타 주민들이 23일(현지시간) 허리케인 '로즐린'(Roslyn)이 휩쓸고 지나가 영망이 된 거리를 치우고 있다. 로즐린은 이날 3등급 상태로 멕시코 서부 해안에 상륙했다고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NHC)는 밝혔다. /연합뉴스

러시아, 서방 국방장관과 연쇄 통화

미국·영국·프랑스·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문제 논의 한 듯

전황 악화도 고전 중인 러시아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영국, 프랑스, 튀르키예(터키) 국방장관 간 연쇄 전화 통화에서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라미 국방장관 간에 지난 21일, 5개월여만에 전화 통화가 성사된 데 이어 불과 사흘 사이에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진 것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당시처럼 이번에도 구체적인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통화에서 "러시아가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명분에 대해서도 배격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 중에 계속되는 소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통화는 러시아가 후속 통화를 요청하면서 성사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에 앞서 쇼이구 국방장관은 이날 영국의 벤 월리스, 프랑스의 세바스티앙 르코르누, 튀르키예의 훌루시 아카르 국방장관과 연쇄 통화를 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세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하면서 통제되지 않는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분쟁지에 '더티밤(dirty bombs)'을 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소환 통보 받자마자 대선 재출마 시사

텍사스주 공화 후보 지지연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의회난입사태와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자마자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시사했다.

23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텍사스주 톨슨타운에서 열린 공화당 후보 지지 연설에서 "나는 두 번 대선에 출마해서 모두 다 이겼다"며 "2020년에는 2016년보다 수백만 표를 더 얻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현직 대통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다시 성공적이고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나는 아마도 다시 그것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대신 여러 차례에 걸쳐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이번 언급은 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하는 하원의 1·6 특별위원회가 그에 대한 소환을 공식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는 트럼프가 지난 대선 결과 및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전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시도를 지휘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며 지난 21일 소환장을 전격 발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소환 통보를 정치적인 의도로 보고 대선 출마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최근 한 방송에서 자신이 기소된다 해도 출마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대선 출마 강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달 중간선거 직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가 출마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될 공산이 작지 않다. /연합뉴스

중국 인민일보 1면

시진핑 얼굴 사진 도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4일 신문 1면에 시진핑 국가 주석의 얼굴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중앙 영도기구가 구성됐고, 시 주석이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됐다는 제목과 함께 시 주석의 얼굴 사진을 게재했다.

신문의 제호와 날짜 부분 등을 빼면 사실상 지면의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로 시 주석의 얼굴 사진을 실은 셈이다.

신문은 시 주석을 비롯해 리창, 자오저지, 왕후닝, 차이치, 덩쉐샹, 리시 등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을 권력 순으로 소개한 뒤 "시진핑 동지가 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연설을 했다"고 전했다.

신문 하단에는 시 주석을 비롯한 7명의 상무위원이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대면식에 참석한 장면을 담은 사진도 게재했다.

그러면서 "1중전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시 주석과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인민대회당에서 20차 당대회를 취재하는 내외신 기자들과 따뜻하게 만났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필리핀 세부 공항 활주로 밖에 처박힌 대한항공 여객기



24일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한 뒤 멈춘 대한항공 여객기가 바닥에 처박혀 있다. 173명의 승객이 탑승한 문제의 여객기는 기상 악화 탓에 막탄 공항에 착륙한 직후에 활주로를 벗어났다. 당국은 탑승자 전원 이 모두 무사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협의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